

“흰 연꽃 피우는 법화행자 되자”



◇광주 자비신행회 회원들이 1백여 독거노인에게 보내질 밑반찬을 만들고 있다.

바라밀현장 자비신행회

“우리 할머니께 못 다한 효도를 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자비신행회의 주방에는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될 도시락 밑반찬을

만드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다. 이날은 자비신행회 회원들이 15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진행되던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의 ‘법화경 원전 강독’을 수료한 날이기도 했다. 자비신행회 회주 현장 스님, 석전사 주지 진옥 스님 등이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 불자들을 격려했다.

호스피스활동·독거노인에 도시락 제공

장학사업위해 ‘다라니 10만독’ 천일 결사

98년 8월 광주 전일빌딩에서 ‘티베트 불교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며 6개월 동안 명상교육도 실시하면서 수많은 불자들이 자비신행회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때부터 활동도 본격화했다. 그런데 이 무렵 외환위기가 온 나라를 강타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신행회 회원

들이 임종을 앞둔 불우한 중환자를 돕겠다고 발원,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했다. “34살의 천주교 신자라고 밝힌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다’고 전화를 해 왔어요. 회원들의 지극한 간호를 받은 그 분은 ‘죽기 전에 꼭 대원사에 가보고 싶다’고 고마워하며 편안히 눈을 감더라구요”라며 신행회 참선단장 무일화 보살은 말한다.

99년 7월부터는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금은 우산복지관, 광주복지관, 오치복지관

등과 함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그 영역이 훨씬 넓어졌다.

또한 2001년 5월부터는 불우 청소년 장학사업을 위한 ‘다라니 경 10만독’ 1천일 결사에 들어갔다. 금요일마다 다라니경 독경 정진 수행을 하는 회원들은 2002년 3월부터 청소년 범죄자 수용시설인 광주 분류심사원을 방문, 수용된 청소년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하는 일도 하고 있다. 무일화 보살은 “마음이 거칠어진 애들을 만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한달에 1번 하는 일이지만 이 날을 위해 늘 긴장하고 기도하죠”라고 말한다.

법화경 공부를 회향한 자비신행회는 새해 1월부터는 현장 스님의 지도로 아미타경을 공부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아미타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만인을 서방정토로 이끌고 싶다는 원을 밝히며 환히 웃는다. (011)618-6983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nia.com

세계의 불교 여성지도자들

텐진 팔모 스님 (上)

(티베트 동구 가찰 링 원장)

네팔등 여성수행자 양성 주력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것을 처음 바라보는 어린이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티베트불교의 비구니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인도 북부 라홀지역의 ‘동구 가찰 링(Dongyu Gatsal Ling)’ 사원의 원장인 텐진 팔모(Tenzin Palmo, 60세) 스님.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여성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팔모 스님은 21세기의 여성 지도자 양성에 심혈을 쏟고 있다.

1943년 영국에서 태어난 스님은 20세에 카구파의 고승 밀라레빠의 전기 읽은 후, 인도에서 명명생활을 하다 막 영국에 도착한 트루와 린포체를 만나 명상을 배운다. 64년 8대 캄트루(Khamtrul) 활불(活佛)을 스승으로 모

이들에게 불교 철학과 수행, 티베트어, 의식, 영어 등을 공부시켜 불교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1998년 자서전 <눈속의 석굴>, 2002년 <산중 호수에 비친 그림자>를 펴낸 텐진 팔모 스님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말라야 석굴에서의 목숨을 건 정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76년 인도 북부의 타시종이란 마을에서 캄트루 린포체의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홀로 석굴 정진에 들어간 팔모 스님은 눈이 많이 내리는 11월부터 이듬해 오뉴월까지 집중적인 명상을 했다. 그리고 오뉴월에 눈이 녹으면 채소를 가꾸거나 뿔나무를 마련하고 생필품을 마련했으며, 때때로 손님들을 만

영국출신...12년간 히말라야 석굴서 수행

“깨어있기 위해선 어린이 눈으로 보아야”

시고 사미니계를 받은 스님은 서구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76년부터 12년간 히말라야 석굴에서 수행해 득력(得力)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 1988년 이태리 아사시로 가서 5년간 전법활동을 펼친 팔모 스님은 인도로 돌아와 1999년 드루와 카구 전법을 잇는 비구니 사원을 창건한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네팔, 티베트, 인도지역에서

온 여성들을 지적,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각국에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은

나거나 독경과 불화 그리기로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몇 달 뒤 다시 10월이 오면 스승께 지도를 받기 위해 타시종 마을로 내려가곤 했는데, 이 때도 아침·저녁의 명상은 멈추지 않았다.

팔모 스님은 12년간의 석굴 정진 동안 가장 힘든 점은 ‘지루함’이었다고 회상했다. 하루 네 번씩 명상을 끝없이 반복하다 보니,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팔모 스님은 이 때 중요한 것은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저 일정을 지켜나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계속>



김재경 기자



◇인도 북부 라홀지역의 ‘동구 가찰 링’ 사원에서 원장 텐진 팔모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스와미 요기의 아쉬람을 방문한 장면. 위 사진은 텐진 팔모스님.



자비신행회 김명실 총무

경전 공부하며 보살행

4월 호스피스 교육 계획

“경전 공부하면서 보살행 펼쳐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98년 자비신행회의 발족과 함께 총무를 맡아 자비신행회 사무를 전

담해 온 김명실(45·사진) 총무. 그녀는 지체장애, 발달장애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유아원과 유치원을 여는 것과 사단법인 등록이 올해

자비신행회의 주요사업이라면 오는 4월 6기 호스피스 교육, 가을 불교상당교육, 불교입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살행에는 불교 공부보다 기초인 것 같다”는 김 총무는 여유가 되는데로 250여 회원 전체가 불교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참선 실수 등의 시간도 늘릴 예정이다.

어느 때 거사 네 명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다. 부처님은 이들이 먼 길을 오느라 배가 고프 것이라 여기시고 제자 아난존자를 시켜 밥을 먹게 한 후 그들을 위해 밥을 설하셨다.

그런데 이들은 설법을 듣는 도중 한 명만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한 명은 계속해서 고개를 찌르고 하늘을 바라보는가 하면, 또 한명은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손으로 흔들며 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손가락으로 땅을 파고 있었고, 오직 한 명만이 설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설법이 끝나고 이들이 떠나자 제자 아난은 부처님께 여쭙었다. 어

째서 이들은 똑같이 설법을 들었다고 오랜 시간을 버리고 찾아와서 저마다 다른 행동을 하는지는 질문이었다. 이에 부처님은 저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과거생에 익힌 버릇이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왔기 때문이라며 그들

마음비추기

의 전생에 관해 말씀하셨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본 사람은 과거생에 별을 관측하던 천문학자였기 때문이고, 나뭇가지를 흔들던 사람은 원숭이였을 때의 버릇 때문이고, 땅을 파던 사람은 지렁이로

살던 버릇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일념으로 부처님 설법을 들던 사람은 역시 과거생에서도 부처님을 따라 설법을 정성껏 들었던 사람으로 그 공덕이 이어져 금생에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설법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버릇... 한번쯤 되돌아 보라

부처님은 이들의 전생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중생들의 버릇은 참으로 지독하고 끈질긴 것으로서 몇 생이 지나도 그 짓을 되풀이하게 되어 있고 철저한 수행을 통해서만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다.

이 일화에서 거사 네 명의 전생이 실제로 천문가나 원숭이 혹은 지렁이였다는 것이 사실이나 아니냐는 것은 중요치 않다. 문제는 중생들은 좋건 나쁜건 저마다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고 그 버릇에 대

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고치려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중생의 모든 행위는 어떤 것이든 지 되풀이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성을 내면 계속 성을 내려는 버

寂然